

교회소식

- 예결산위원회 오늘 친교 시간 재정부실에서 모입니다.
- 선교부: 2020년 세광교회 단기선교
 - 기간: 2020년 2월17일 – 21일(Presidents Day Week)
 -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 예배 및 행사 안내
 - 12월 31일(화) 저녁 11시 송구영신예배
 - 1월 5일(주) 신년주일 (연합예배. 윷놀이)

제19권 50호

2019년 12월 29일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섬기는 사람들

12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서영수 장로 (시 147:12-20)
이번 주 친교: 김현정 권사, 임수연 집사
다음 주 친교: 이영순 권사, 한주루 권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종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흔두라스)

성경공부 및 모임

창세기 성경공부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_____ 다함께
Apostle's Creed

대표기도 ----- 시편 148 ----- 손명식 집사
Prayer Psalms 148

찬양-----"지금까지 지내온 것"----- 세광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이사야 52:3-12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52:3-12

설교-----“나 여기 있다!”----- 이민영 목사
Sermon-----“I am here!”----- Rev. Dr. Lee Min Young

* 찬송 ----- 516장 (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다함께
Hymn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Memo

12월 15일 주일 말씀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사야 51:17-52:2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행하소서"(51:9)라는 우리의 외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나서 힘을 내라"고 응답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예수시는 영국의 블루티풀을 끝에 민고 민도아시는 눈에의 블은 달라질 것 같나니(5:21:10).

너나 잘하라는 책망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해야 내가 움직이겠다는 조건도 아닙니다. 은혜로 틀림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일에 파트너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셔 취했지만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진노의 잔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과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심판의 잔을 마신 것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인데, 마땅히 받은 잔인데 마시고 취한 채로 그냥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받은 벌이라 해도 죄의식과 슬픔에 갇혀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을 술잔에 비유하는 것은 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정상으로 여기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라는 자책과 체념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견디게 하는 마취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깨어도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두려워하고 통회하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목말라 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원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잔을 원수에게 옮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수라도 깨어날 기회를 주시려고 자기가 그 잔을 다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되는 용서를 하시려고 마땅히 죽을 자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은 그 사랑을 만납시다. 그러면 깰 수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52:1). 우리 안에 무슨 거룩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순종을 통해 온전케 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때까지 간구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자기 착각과 세상의 위로에 취하지 않고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의 보잘것 없는 공로로 치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능력과 거루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